



보도 일시	2022. 6. 13.(월) 16:00	배포 일시	2022. 6. 13.(월) 14:00
담당 부서 <총괄>	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	책임자	과 장 정광조 (044-215-8770)
		담당자	사무관 김영수 (onandon@korea.kr)

제4차 한-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(ODA) 통합 정책협의 결과

- 캄보디아 EDCF 차관 지원한도 5년간 7억불 → 15억불로 증액 추진
- 그린·디지털·보건 분야 국내기업 진출 차관 후보사업 16건 발굴
- 24개 기관, 총 4천 7백만 불 규모의 무상 원조사업 연내 추진

□ 한국-캄보디아 양국 정부는 '22.6.13(월) 「제4차 한-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(ODA) 통합 정책협의*」를 개최하였다.

* 동남아 ODA 중점협력국들(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베트남, 미얀마, 라오스)과의 경제 협력 및 유상 및 무상원조 실시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

○ 양국 정부는 중장기 ODA 정책방향과 EDCF* 기본약정** 갱신, 중기 EDCF 차관 지원 후보사업 발굴, 무상원조 협력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.

* **대외경제협력기금(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)**: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를 원칙으로 개도국의 경제·사회 인프라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장기저리의 차관 지원기금

** **기본약정(Framework Arrangement, F/A)** : EDCF 지원 약정기간 및 한도액을 사전에 설정하여, 기간·한도 내 승인된 사업은 별도 약정 체결 없이 신속 지원 가능토록 합의한 조약

< 제4차 한-캄보디아 ODA 통합정책협의 개요 >

□ 장소 : 캄보디아 프놈펜 경제재무부 회의실 □ 일시 : 2022.6.13.(월) 오전

□ 양국 대표단 :

- (한 국) **기재부** 김경희 개발금융국장(수석대표), 외교부,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,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국제협력단 등
- (캄보디아) **경제재무부** 햄 밴디 차관(수석대표), 경제재무부, 외교부, 개발위원회, 공공사업교통부, 보건부, 교육부, 농촌개발부, 수자원기상부 등 ODA 관계부처 등

□ 기획재정부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,

- “캄보디아에 대한 유·무상 ODA는 양국의 굳건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1987년 이래 지속 확대되어 누적 8.4억 불('20년 말 지출액 기준)에 이르렀다” 라고 강조하며,
- “향후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‘한 팀(One Team)’으로 역량을 모아 캄보디아의 팬데믹 조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< EDCF 기본약정 증액 갱신 추진 >

□ 양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기본약정에 따른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'16~'23년 간 7억 불에서 향후 5년 간('22~'26년) 15억 불로 대폭 증액 갱신하기로 하였다.

- 캄보디아 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로 기존 EDCF 기본약정이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차관 지원한도 증액 갱신을 요청하였다.
- 기획재정부는 캄보디아가 ①동남아 ODA 중점협력국가로서 풍부한 경험 잠재력, ②양국 간 그린·디지털, 보건 분야의 ODA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, ③대규모 인프라 개발협력 수요* 등을 고려하여 증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*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전략개발계획(NSDP, '19~'23)에 따라 교통, 에너지, 수자원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을 추진 중

- 향후 양국 정부는 EDCF 기본약정 문안 협의 등을 통해 동 약정이 조속히 갱신 체결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.

< EDCF 차관 지원 후보사업 발굴 >

□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그린·디지털·보건 분야에 국내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을 지원하는 EDCF 차관 지원 후보사업 16건*을 발굴하였다.

* 후보사업 목록은 양국 정부의 사업추진 논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음.

- ① 대표 사업으로서, 그린 분야 '프놈펜 동남부 상수도 개발사업'은 총사업비 1.8억 불을 투자하여 수도 프놈펜 위성도시 칸달 지역에 상수도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으로,
 - 캄보디아에 최초로 지원하는 상수도 사업으로 주민들의 보건위생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.
- ② 디지털 분야 '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'은 총 사업비 2억 불을 투자하여 캄보디아의 전자정부 인프라 조성 및 ICT 분야 발전 기반을 마련할 예정으로,
 - 국내 ICT 기업의 참여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③ 보건 분야 '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 2차 사업'은 총사업비 2억 불 규모로 EDCF가 1차 지원*했던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 병원을 확장 예정으로,
 - * EDCF 지원을 통해 1차 사업(수도 프놈펜에 200병상 규모의 병원 건설 및 의료장비 공급 등) 진행 중('19. 3월 차관공여계약 체결)
 - 캄보디아 유일의 국립의과대학 병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, 의료 인력 역량을 강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 무상 ODA 협력 강화 >

- 양국 정부는 올해 24개 기관, 총 4천 7백만 불 규모의 캄보디아 대상 무상원조 사업 추진을 통해 무상 ODA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.
- 한-캄보디아 무상 ODA 사업은 물관리 및 보건위생, 교통, 교육, 지역 개발 분야 협력에 중점을 두는 한편,
 - 캄보디아 등 동남아 5개국과 추진 합의*한 5대 중점 분야인 디지털·고등교육·미래평화공동체·스마트시티·교통 분야 사업 또한 중심으로 추진한다.
 - * 동남아 5개국(캄보디아, 필리핀, 라오스, 미얀마, 베트남)과 5대 중점 프로그램 추진 합의 (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('19.11월) 계기 한-동남아 5개국 간 개발협력 MOU)
 - 특히, 캄보디아 측이 희망하고, 현지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그린 및 ICT 분야 무상 ODA 사업도 적극 발굴·추진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「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(ODA KOREA: Building TRUST)*」의 일환인 보건협력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.

* '20.6월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구상으로,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'20년 130만불, '21년 30만불 지원

-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와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, 우호 관계 등을 감안하여 ODA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,

- 포스트 코로나 대응 지원, 국내 기업의 그린·디지털·보건 분야 진출 사업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	책임자	과 장 정광조 (044-215-8770)
		담당자	사무관 김영수 (044-215-8772)
<무상협력>	외교부 개발협력과	책임자	과 장 박지숙 (02-2100-8137)
		담당자	사무관 이가현 (02-2100-8350)